

신안군 '1004 뮤지엄파크' 조성 막바지



천사대교 끝자락 자은도 일대에 조성된 1004 뮤지엄파크가 신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신안군은 1004 뮤지엄파크 막바지 공사를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고, 8월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1004 뮤지엄파크는 복합 문화예술단지인 자은도 양산해변 일대

500,000㎡ 부지에 특색있는 테마로 이뤄진 뮤지엄과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를 품은 휴양숲 공원은 태초의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거스르지 않는 섬세한 배치로 현대인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꾸며, 일출과 일몰도 장관이다.

자은도 양산해변 일대...내달 1일 정식 개장
“지친 일상 탈출하는 새로운 ‘핫플’로 떠올라”

수석미술관은 파도와 바람이 빛아놓은 수석 300여 점을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 흥미롭게 꾸몄고 특히 신안에서 수집된 산수경석은 자연을 옮긴 듯 신비롭다. 미술관 앞 수석정원은 7,000㎡ 부지에 3,000톤에 이르는 기암괴석과 200여 종의 야생화, 100여 그루의 분재 등이 해변과 어우러져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연상시킨다. 조개박물관은 국내 최대의 조개·고동 전문박물관으로서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신비한 바다 생태계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준다. 이 밖에도 도서 자생식물 연구

센터, 신안 새우란 전시관, 해상숲 오토캠핑장, 유리공예공원 등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 신안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004 뮤지엄파크는 8월 1일부터 1만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특별 홍보 기간에는 입장료 일부를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 뮤지엄파크는 바다와 숲,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조성하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친구, 연인들이 많이 찾아와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 국비확보 안간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면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해 2021년도 역점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국비확보를 요청한 역점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예타면제 및 80억원), △목포항 여객부두(국제여객터미널) 추가확충(15억원), △목포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60억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 지원(남항부지 조기사용), △수출전략형 김 가공제품 개발(14억원),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건립(27

억원) 등을 건의했다. 김시장은 코로나19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과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된 △목포시 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자가격려시설(제)목포 국제축구센터의 손실보상에 대해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김시장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년도 재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현대삼호중공업, 상생방안 마련

훈련기관 훈련생, 조선 기능인력 훈련장려금 지원

영암군은 조선산업의 터진 회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김형관 대표이사)과 지역산업·일자리를 창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사내 훈련기관을 활용한 ‘조선 기능인력 훈련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6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불산단 방문과 2020년 1월 이호승 경제수석 조선산업 현장 방문시 조선업 관련 기업측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2019년 10월 전라남도과 도 출연기관의 시범운영으로 55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다.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 물량 확보 등으로 조선분야 기능인력의 수요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영암군 주관으로 훈련생 115명 목표 대비 207백만원을 투입하여 직업훈련과 훈련장려금 지원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누구나 훈련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등 절차를 통해 훈련생으로 선발후 훈련생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훈련장려금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업단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업 관련기업들이 산단 입주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조선산업이 기반산업으로 집적화·특화되어있는 국가산업단지이다. 2016년 이후 해외 선박의 국내 수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조선업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실정이다.

하지만, 금년 6월에는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P)이 국내 조선3사와 약 100척 규모의 LNG선 슬롯 계약을 맺었고 이는 한화 약23조 6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계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이러한 실제 수주계약이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청년층 구직자의 조선업 기피 현상으로 조선업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게 되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경찰, 대중교통 방역지침 준수 위해 함평교통 등 면담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협조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6일, 함평교통 및 합자회사인 함평 및 영수택시를 방문, 조합장을 상대로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함에 따라 대중교통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지난 6월21일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운전자들 상대로 한 폭행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관련 내용 홍보 진행중이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운

전자 폭행 등 발생시 적극적으로 112신고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진단서 등 제공 및 현장에서 112신고가 곤란할 경우 사후 고소를 통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운송조합에 협조 당부와 함께 버스·택시 대표 운송조합을 중심으로 ‘사람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 합동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종열 서장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지난 19년부터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경찰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조합 간 핫라인 구축으로 대중교통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112신고 접수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방판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오는 19일까지 2주간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목포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목포시 전체 방판업체 107개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달 23 구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방판업체에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됨

에 따라 집합금지로 행정명령을 강화하여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방판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43406건 76억7천만원

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43,406건 7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삼향읍은 전체 부과액의 70.5%인 53억원을 부과해 9개읍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은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 20만 원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담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